

재중·유천 日오피로 헌정앨범 참여

입력 2009. 8. 5. 08:59 · 수정 2009. 8. 5. 08:59



듀엣곡 중심으로 싱글 음반도 발매(도쿄=연합뉴스) 이태문 통신원 = 소속사와 일부 멤버의 소송 사태로 해체설이 나도는 동방신기의 멤버 중 소송 당사자들인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이 일본 인기 힙합그룹 오피로(m-flo)의 헌정앨범에 참여한다.

둘은 1999년 데뷔 이래 일본 대중음악사에 선풍을 일으킨 인기그룹 오피로의 1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6일 출시될 그 헌정앨범 'm-flo TORIBUTE -maison de m-flo'에 듀엣곡 'been so long'으로 참여한다.

이 헌정 앨범에는 아오야마 테루마, 미소노, BENI 등 주목받는 인기 아티스트 10개 팀의 신곡이 수록된다.

한편,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은 지난달 4일과 5일 도쿄돔 공연에서 선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듀엣곡 'COLORS Melody and Harmony'를 다음달 30일 싱글로 출시한다.

나아가 둘은 오는 20일 도쿄 오다이바의 제프도쿄(Zepp Tokyo)에서 열리는 음악이벤트 'BOY P OP FACTORY 09'에 출연해 팬들 앞에서 직접 듀엣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이 작곡과 편곡을 담당한 신곡 'COLORS Melody and Harmony'는 헬로 키티(Hello Kitty) 탄생 35주년을 기념하는 이미지송으로 뽀뽀 9월부터 키티 전문매장인 전국의 산리오(Sanrio)숍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다.

gounworld@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